



교섭속보

8호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 / 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 / 노재옥

파업 찬성률 94.1% 역대 최고치 찍었다! 이제는 승리만 남았다!

투표율 81%, 파업찬성률 94.1% 지부 투표율 중 가장 높아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약 3천 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참가했으며 파업찬성률은 지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인 94.1%로 기록됐다.

또한, 찬반투표 기간 중 신규 조합원으로 등록한 인원이 약 100여 명에 달해 이번 파업에 대한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진행한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또한 55,208명 중 45,671명(89.7%)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보건의료노동자의 파업 투쟁 결의가 모아 지고 있다.

9월 1일 파업전야제, 9월 2일 파업으로 모이자.

‘코로나 시국이라’, ‘환자를 두고’ 라는 생각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말자. 현재 정부와 시민들은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을 통해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우를 더 자세히 알게 됐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 조합원이 준비하여 9월 2일 파업에 결연하게 참가하는 것 뿐이다.

한편, 중간관리자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병동 및 각 부서에서 조합원에게 불참 중용 발언 및 문자를 보내는 등이 대다수이다. 우리지부는 중간관리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행위 당사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재적인원	투표자수	투표율	찬성	찬성률	반대	반대율
3,573	2,897	81.1%	2,724	94.1%	157	5.4%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 결과

**“9월 1일 전까지 3차례 교섭 진행 할 것”
의료원 의무부총장 및 기획처장 참석 안 해**

8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가 오후 2시 세종시에서 진행됐다. 1차 조정회의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안과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사측은 대표교섭위원인 의무부총장 및 기획처장이 불참했으며 이를 대신해 김호용 사무국장을 비롯한 실무교섭진이 참가했다. 노측은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수석부위원장 및 노재옥 투쟁본부장이 참가했다. 회의는 약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중노위 위원들은 노사 입장 및 내용을 정리하여 “산별 교섭과는 별도로 지부 교섭도 중요하기에 9월 1일 전까지 3차례 교섭을 진행” 하라는 주문을 했다. 이에 1차 실무 교섭이 8월 28일(토)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는 파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는 우리에게 파업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료원은 부디 조합원의 분노를 느끼고 타결안을 내기 위한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대한간호협회등 보건의료노동자 투쟁지지 성명 발표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코로나19는 여전히 4차 대유행 단계에 있고, 변이바이러스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 계절성 및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에 따른 감염병 위험은 상존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이나 치매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정부의 견고한 대책 수립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역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추진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의료원등 공공병원을 대폭 신설 및 증설하여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

둘째, 국립공공의료대학원과 국·공립 의과대학을 조속히 신설하고,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 및 공공임상교수제를 즉각 도입하며, 지방의료원의 전공의 수련기반을 강화하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정부와 국회는 코로나19 최전선에 서 있는
간호사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처절한 절규와 외침에 응답하라!

성명서 자세히 보기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벌써 1년 7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비대면과 마스크가 일상이 된 세상에 우리 국민들도 적응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전혀 변하지 않은 한가지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간호사를 포함한 수많은 의료현장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맞서 땀과 눈물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제시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요구 중 특히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기준 마련’,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PA간호사 등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는 행위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을 정부와 국회가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전 조합원 출근 선전전 : 8월 30일(월)~ 9월 1일(수) 3일간

**** 반드시 1회 이상 참가바랍니다. ****

장소 및 시간 : 각 병원 로비 / 오전 7시 20분 부터